

다이와보 - 집 안에서도 잘 마르는 속건소재 개발

다이와보는 취업주부들이 빨래를 밖에 널 수가 없어, 부득이 집 안에 널면 빨래가 잘 안마르고, 빨래에서 냄새가 나기도 하여, 집 안에 널어도 잘 마르는 소재를 “쾌적무취생활(快適無臭生活)”이란 브랜드로 개발하고, 2004년 봄부터 파자마감을 중심으로, 제품으로는 3만매 규모가 되는 8만m를 판매하였다. 또한 여름철부터 이 소재로 만든 운동용 팬츠(trunks)와 내의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.

“쾌적무취생활”은 소취, 공기청정, 항균방취, 방오의 효과가 있다는 광촉매 산화티탄(光觸媒酸化titan)에 의한 가공 “소레쉬”와 속건성(速乾性)을 좋게 한 가공 “미스터 간타로(Mr. 乾太郎)”의 두 가공을 하나로 짜 맞춘 소재이다.

이들 소재로 면 100%와 폴리에스터 50%, 면 50% 혼방의 직물 및 편포를 만들어 부인·기혼여성용 파자마소재로 공급하고 있다. 파자마용은 천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운동용 팬츠 및 내의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.

건조시험은 천을 물에 담그고 1분간 원심탈수(遠心脫水)한 다음, 건조율이 90%가 될 때까지의 달성(達成)시간을 측정하는 “JIS L 1096 건조성 A법” 시험에서는, 보통 면 100% 소재보다도 20% 이상 건조시간이 단축되었다. 2004년에도 20만m 이상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한다. ♣